

위대한 한 김 정 일 동 지 의 주 체 의 당 건 설 령 도 사 를 만 대 에 길 이 빛 내 여 나 가 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벅찬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 ㄱ, ㄴ 》로부터 시작된 장구한 우리 당 건설 력사에서 주체 53(1964)년 6월 19일은 대를 이어 백두의 전설적위업을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대英雄的 날로 찬연히 빛나고있습니다.

이날이 있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백두에서 뿌리내린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즐기차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백두에서 추켜든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 온 지난 반세기과정에서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를 만들어내어 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화를 북으로 전환시키는 기적창조의 보검으로 되었고 장군님의 태양상은 강성민영의 패를 확신하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높이 모신 50돐은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게 빛내이는 종대헌 계기로,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의 영연성과 조선로동당의 양방향 전도를 과시하는 크나큰 경사로 빛나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조선로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우리 당의 당건설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현대력사에서 가장 오래고도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집권당령도사를 창조하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결출한 령도자입니다.

지나온 반세기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매우 종대한 시기였으며 해아릴수 없는 시련을 겪을결을 헤쳐나가는 간고한 날이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행동,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을 실현하는 전진미증의 사회주의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어 주셨습니다.

이 력사의 날에 주체혁명, 선군혁명위업은 최후승리가 내다보이는 새로운 높은 명마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상사업을 앞세워 백승을 떨치신 현명한 령도

조선로동당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백승백승을 떨쳐가는 주체의 혁명정책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주체 84(1995)년 6월 19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사상사업의 대강을 마련하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이켜고있습니다.

장교 반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당령도사는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달하여 만사를 해결하여 오신 비범한 령도자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사상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 나갈것이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향도해나가는 혁명정당에 있어서 사상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종합체계화하고 하나의 백과전서적인 교과본으로 정립하는것은 탁월한 령도자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으로부터 그 기본원리와 내용, 원칙과 방법,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진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에는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와 완벽하신 사상리론적자질, 풍부한 당건설 경험과 세련된 령도예술이 그대로 빛발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20년에 이르는 기간은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신 로정은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헌신으로 일관된 순결한 계승의 력사입니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소위천진변이 이룩된 백승의 력사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어온 영광의 력사로 빛나고있습니다.

세계정치사에는 이룩없는 정치가들이 지지 않았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같이 그렇듯 장구하고 영광스러운 혁명령도사를 수놓으신 로승과 고 세련된 령도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사는 조선로동당을 주체형의 혁명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성스러운 년대기로 आरो세져되었습니다.

지난해 60년대에 우리 혁명당에는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온사부에 실현하는 강력한 정치적함도 바로 강화발전시키시는 조지의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한몸에 지니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는것을 두렷이 밝혀오시어 이 영광스러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명도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업을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어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형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데 이어 전당김일성주의화방향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결정적전환의 리징표로 되었습니다.

전당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창달한 김일성주의정수본자로서의 위대한 조선로동당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혁명도체계가 확고히 사상사업순결체, 조직적단결체, 행동의 통일체로 전진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을 사람과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승으로 강화하시었으며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총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었습니다.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어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오늘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고귀한 밑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사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놓으신 거창한 창조와 번혁의 서사시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이 주체의 령도원칙과 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적이며 진투적인 사업전개방식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풍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각, 대혁신을 일으키고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당에 가장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1990년대에 강계정신, 정강의 봉화가 세차게 나래치게 하시어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고난의 행군을 타탄의 행군으로 전환시키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21세기전군에서 더욱 뚜렷이 파시되었습니다.

주국의 반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이어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헌지지도강행군길에서 강선과 함남을 비롯한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편이여 타올라 강계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만년토대의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최첨단을 돌파해나갈때 대한 당의 의도가 구현되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조국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우뚝 올라섰는것과 같은 5천년민족사의 대대사건들이 다대단으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지난 반세기는 혁명과 건설을 순간의 담보나 체념도 없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력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우리 당령도사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어온 불멸의 년대기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당건설과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일찌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선행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을 분석총화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실천속에서 김일성주의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어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었습니다.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 경제문화건설리론으로부터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이르기까지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에 백과사전적인 해답을 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오늘의 21세기를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백두의 선군정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는 위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대로 수령의 두리에 사상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통틀린 혁명의 대어로 키우시고 인덕정치, 팡목정치로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끌어들여주시었습니다.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여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그것은 오늘 선군조선의 제일강국으로, 필승불패성의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을 당과 혁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사업을 선군혁명로선관철에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도록 하시어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당과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보위해나가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적적인 군사강국으로 전진되었습니다.

가장 송고한 미패권을 지니시고 자주적국방력강화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후손민간의 번영을 위한 언거니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적을 우리는 대대손손 길이 전해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어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면단결을 마련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은 우리 민족거리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놓았으며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영향력을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위상을 비상히 강화하였습니다.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전환을 안아오시고 자주시대의 발전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대과 혁명이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에 백과사전적인 해답을 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오늘의 21세기를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신것은 주체의 당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획기적인 사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당건설원리과 원칙, 당사주의체계와 방법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사업을 장군님시대로 해나가는것을 당건설의 종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전당에 위대한 장군님신 인민관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유대까지 새로운 승고한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적인 사상봉사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때 대한 열망을 당원들에게와 당사업에 사상정, 선진선동의 힘찬 포성을 울려나가도록 하신것은 천만군민의 정진력을 한백배로 불꽃시우려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오늘의 김정은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념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희망찬 시대입니다.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새로운 병진리론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로동당의 붉은 기폭을 제일강력으로 들고나오는 인민군대의 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었으며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이 만방에 높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력사와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그 어떤 천지공파에서도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과 혈통은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항력을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위상을 비상히 강화하였습니다.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전환을 안아오시고 자주시대의 발전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대과 혁명이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에 백과사전적인 해답을 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오늘의 21세기를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신것은 주체의 당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획기적인 사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당건설원리과 원칙, 당사주의체계와 방법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사업을 장군님시대로 해나가는것을 당건설의 종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전당에 위대한 장군님신 인민관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유대까지 새로운 승고한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적인 사상봉사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때 대한 열망을 당원들에게와 당사업에 사상정, 선진선동의 힘찬 포성을 울려나가도록 하신것은 천만군민의 정진력을 한백배로 불꽃시우려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오늘의 김정은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념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희망찬 시대입니다.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새로운 병진리론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로동당의 붉은 기폭을 제일강력으로 들고나오는 인민군대의 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었으며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이 만방에 높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력사와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그 어떤 천지공파에서도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과 혈통은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항력을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위상을 비상히 강화하였습니다.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전환을 안아오시고 자주시대의 발전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대과 혁명이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에 백과사전적인 해답을 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오늘의 21세기를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신것은 주체의 당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획기적인 사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당건설원리과 원칙, 당사주의체계와 방법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사업을 장군님시대로 해나가는것을 당건설의 종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전당에 위대한 장군님신 인민관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유대까지 새로운 승고한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적인 사상봉사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때 대한 열망을 당원들에게와 당사업에 사상정, 선진선동의 힘찬 포성을 울려나가도록 하신것은 천만군민의 정진력을 한백배로 불꽃시우려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오늘의 김정은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념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희망찬 시대입니다.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새로운 병진리론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로동당의 붉은 기폭을 제일강력으로 들고나오는 인민군대의 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었으며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이 만방에 높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뜻깊은 이 아침, 필멸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를 바라보는 인민의 눈빛은 헌없이 승업으로 열렬하다.

—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당기발을 바라보며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터치는 뜨거운 정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남다른 소 할것없이 모두가 오직 당을 믿고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있습니다.》

실사 그 누가 어떤 외전 곳에 있다고 해도 당의 사랑, 당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이 품어준다는 것을 인성체계를 통하여 깊이 깨달은 우리 인민이다.

수십년전 풍랑사나운 서해의 날바다우에서 얼음층에 실려 떠내려가던 한 처녀가 과연 어떻게 구원되었던가.

당에서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긴급구조전투를 벌이고 직속기들까지 동원하도록 하였다.

동해북단의 외진 섬마을에도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이 섬에는 일년내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당중앙위원회에서 파견한 일군이 찾아왔다.

《섬사람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할 과업을 받고 왔습니다.》 일군의 말에 섬사람들은 눈물을 머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과 멀리 떨어져서도 인민의 동태를 확신있게 향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는 위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의 사상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각적혁신을 일으키며 창조대강행군을 걸으시는 온 나라대고조전투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어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뜻깊은 이 아침, 필멸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를 바라보는 인민의 눈빛은 헌없이 승업으로 열렬하다.

—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당기발을 바라보며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터치는 뜨거운 정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남다른 소 할것없이 모두가 오직 당을 믿고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있습니다.》

실사 그 누가 어떤 외전 곳에 있다고 해도 당의 사랑, 당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이 품어준다는 것을 인성체계를 통하여 깊이 깨달은 우리 인민이다.

수십년전 풍랑사나운 서해의 날바다우에서 얼음층에 실려 떠내려가던 한 처녀가 과연 어떻게 구원되었던가.

당에서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긴급구조전투를 벌이고 직속기들까지 동원하도록 하였다.

동해북단의 외진 섬마을에도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이 섬에는 일년내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당중앙위원회에서 파견한 일군이 찾아왔다.

《섬사람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할 과업을 받고 왔습니다.》 일군의 말에 섬사람들은 눈물을 머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과 멀리 떨어져서도 인민의 동태를 확신있게 향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는 위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뜻깊은 이 아침, 필멸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를 바라보는 인민의 눈빛은 헌없이 승업으로 열렬하다.

—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당기발을 바라보며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터치는 뜨거운 정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남다른 소 할것없이 모두가 오직 당을 믿고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있습니다.》

실사 그 누가 어떤 외전 곳에 있다고 해도 당의 사랑, 당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이 품어준다는 것을 인성체계를 통하여 깊이 깨달은 우리 인민이다.

수십년전 풍랑사나운 서해의 날바다우에서 얼음층에 실려 떠내려가던 한 처녀가 과연 어떻게 구원되었던가.

당에서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긴급구조전투를 벌이고 직속기들까지 동원하도록 하였다.

동해북단의 외진 섬마을에도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이 섬에는 일년내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당중앙위원회에서 파견한 일군이 찾아왔다.

《섬사람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할 과업을 받고 왔습니다.》 일군의 말에 섬사람들은 눈물을 머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과 멀리 떨어져서도 인민의 동태를 확신있게 향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는 위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조 혁 철

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과 멀리 떨어져서도 인민의 동태를 확신있게 향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는 위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재보

불패의 단결로 백두산대국의 만년대계를 담보하시어

조국강산에 력사의 날이 밝아왔다. 6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정도로 조선로동당을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대적인 거룩한 자욱을 돌이켜 보고있다.

남들이 백년, 천년을 두고도 체험할 수 없는 승리와 영광의 력사가 수놓아지고 민족민단의 영원한 전리가 새겨졌기에 우리 장군님의 당령도사는 천만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아버이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호모와 신뢰, 그것은 그이를 온몸을 바쳐 따르며 발들어온 전체 당원들과 군대와 인민의 진실한 사상감정의 분출이며 위대한 통일단결의 생동한 화폭이었다.

위대한 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평등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줄 확신에 넘쳐있다.

위대한 평등과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 전진하는 혁명적대중, 대중속이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대중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주체혁명의 혁명적담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단결의 력사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 일일단결을 자신의 혁명철학으로 내세우셨다.

조선혁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에 벌써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결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제기하셨다.

통일단결문제를 당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로 보시였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첫 시기부터 모 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지 않았던가.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와 불변 불후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자주시하여 위대한 지도사상, 김일성주의로 발전공부화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 한없이 고매한 인덕으로 사상의 일쇄화를 총싹되 실현해오셨다.

은 사상이론적예지와 위대한 강령을 내놓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전당김일성주의화방침을 제시하시어 이 땅에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단결의 새 력사를 펼치신 그 격동의 나날들이 추억의 물결에 실려온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쇄화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 지적으로 굳게 결합된 위대한 전투대로 우리는 사업이 단결성의 중심과업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 평범한 균형을 당의 두리에 흔흔히 부여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이 현이 취해졌것은 전당김일성주의화방침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적지적, 도덕리론적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억척불변의 신념이었고 의지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있던 1980년대 중엽의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전에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말할 때 주로는 조직적일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조직적일체로서

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춘 우리 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승화시키고 하나의 사상으로 움직이는 사상적일체로서의 면모를 완전하게 갖추도록 하여 나아가서 혁명대오의 일일단결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선언하시였다.

일일단결, 실로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밝히실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었다.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 당도, 그 어느 정치인도 전 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일일단결의 사상에 대하여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당에서 한마디 하면 전당이 한결같이 동원되는 그러한 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당은 일일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시며 우리는 일일단결을 주장함이다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이 땅에 생을 둔 천만사람들을 육친의 정으로 묶어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영원한 동지로 묶어세우시며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승조함과 뜨거움을 일일단결의 화원을 가꾸는 열원이였다.

언제인가 인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충신을 낳고 일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원천이라고, 자신께서는 믿음으로 동지를 구하고 일일단결의 대오를 꾸려나간다고 열정적 단결을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가 들려오는듯하다.

수령과 사랑, 의리와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그 품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우리 장군님과 마음도 승조도 겹겹도 같이하는 우리의 혼연일체는 얼마나 위대한것인가.

수령과 인민, 최고사령관과 전사들 사이에 맺어진 우리의 통일단결, 일일단결, 혼연일체, 불멸의 당령도사를 위대한 단결의 서사시로 수놓아오신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고귀한 헌신이 이 성

스러운 시대에속해 함축되어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이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 들어섰으며 당내에 강철같은 규율이 확립되었다고, 전체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두리에 튼튼히 뭉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우리 당을 이처럼 위대한 전투대로로 강화하고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은 김정일동지의 커다란 공로이라고 격정을 담아 말씀하시며 환희 웃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도 눈앞에 안겨온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 혁명대오의 일일단결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그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궤방은 허용될수 없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간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은 오늘도 찬연히 빛나고 있다.

평등자의 사상이 전당에 맥박치고 평등자가 벽을 울리며 천만의 대오가 강산을 울리며 떨치거나 혁명의 기적을 창조한 이 땅에서 우리 장군님과 천만군민은 멜레야 멜수 없는 운명공동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 밑에 굳건히 다져주신 우리 당의 혼연일체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최후의 승리에 또 향도하는 우리 당의 평등적열은 비사상적 높이 지고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일일단결은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공교성을 확고히 담

보하고있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어머니당을 따르는 천만군민의 사상도 뜻도 하나, 신념과 발걸음도 하나이다.

일일단결, 정녕 그것은 회세의 정치원리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내 나라, 내 조국의 참모습이다.

지난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인민대중, 평등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워진 열원의 정으로 이어진 우리의 일일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을 말씀하시였다. 일일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 이 세상에 없다!

당을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니본적 없고 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힘의 근원천원이자 우리 조국은 이 위대한 일일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의 력사를 빛내여가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의 불멸의 단결력이면가 6월의 하늘가에 천년치는 세한 열기,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를 적셔주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이 울려오는듯하다.

위대한 평등자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일일체와 그에게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절세의 위업을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필승불패 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이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의 노력은 사람들의

꽃 과 나 비

주제 59(1970)년 여름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호수가에 잠시 머무르게 되시였다.

갓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호수가의 정경은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벌과 나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무엇이 향기있는 꽃이고 어느것이 향기가 없는 꽃인가를 쉽게 가려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리치는 인간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오고 당일군은 인성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당일군의 향기는 곧 인성미와 인성미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자연현상을 놓고 생활의 리치, 당사업의 리치를 새롭게 깨달으며 흥분을 겨워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당을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니본적 없고 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힘의 근원천원이자 우리 조국은 이 위대한 일일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의 력사를 빛내여가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의 불멸의 단결력이면가 6월의 하늘가에 천년치는 세한 열기,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를 적셔주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이 울려오는듯하다.

위대한 평등자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일일체와 그에게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절세의 위업을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필승불패 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이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의 노력은 사람들의

이시였다. 벌과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오는것은 향기가 풍기는 꽃에 꽃말이 있고 꽃말을 날라가야 살아갈수 있기때문이다. 벌과 나비가 모여들어야 가루받이가 잘되어 열매를 맺을수 있기 때문이다. 당과 인민과의 관계도 그 리치는 똑같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전위조직인 당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당의 령도를 받아야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낼수 있으며 당은 또한 대중을 자기의 두리에 묶어 세워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혁명이 승리할수 있으며 당지체의 존재도 유지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는 그의 말씀을 들으며 일군들은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였다.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이라는데를.

당을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니본적 없고 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힘의 근원천원이자 우리 조국은 이 위대한 일일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의 력사를 빛내여가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평등자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일일체와 그에게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절세의 위업을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필승불패 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이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의 노력은 사람들의

(시) 위대한 복무의 력사가 흐른다

언제나 이 가슴속에 생을 받은 날처럼 안고 사는 날 우리 장군님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아, 1964년 6월 19일!

그날부터 장장 반세기 그 뜻 외는 해와 달은 인민의 마음과 마음에 위대한 우리 당이 어머니모습으로 새겨진 해와 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성스러운 복무의 력사 사랑의 그 세월이 우리 혁명의 피줄기로 이어졌다 장군님의 한생의 최우명 한생의 승명이 실려있고 평등의 천만리가 다 어려웠다

세월의 눈비바람 얼마나 세졌거나 시련의 준평은 얼마나 높았거나 멀고 험한 그 길을 달려온 최고사령부 야전전령차는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집무실이였다

전선에 있는 우리 당중앙이었다! 장군님에게 이어 인민은 자신의 한생을 불처럼 태워 받아들여 사랑의 전부 생활의 총체였다

그 무슨 말로 헤아리랴 천만사식 용안고 키우시며 장군님 겪으신 천만고생 사상결단의 그 천만고비... 그래서 우리는 그 력사를 위대한 인민복무의 력사로 부른다

이 조선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천만아들딸 장군님은 품에 안고 오셨다

인민을 위해 선군의 총을 잡은 우리 당 눈물겨운 그 자욱자욱을 이으면 선군혁명천만리 그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백전백승의 천만리

우리에게 생을 주시고 자신의 심장을 주시고 한생을 다 주신 장군님은 인민의 영원한 아버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 신념 포대로 세우고 한평생 장군님 걸으신 인민복무의 행군길에 오늘도 팔없이 울리는 어머니 우리 당의 발걸음소리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

인민위원의 세상에 빛을 주고 열을 주는 선군조선의 찬란한 태양 김정은동지 장군님의 사랑과 공로 인민을 돌보시는 원수님의 발걸음소리

천만년세월이 흐르들 우리 어찌 달리 부를수 있으랴 하늘땅이 바뀔대도 그 품에 안겨살 우리 당은 김정일동지 우리 당은 김정은동지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원수님 품에서 팔없이 흐르고있나니 아, 장군님의 정과 열이 6월의 푸른 대지에 뜨겁게 굽어친다 태양의 환한시 그 미소 6월의 맑은 하늘가에 가득차 넘친다

백년, 천년 백두의 혈통을 이어가며 장군님 식솔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위대한 계승, 위대한 인민복무의 력사

백두산 줄기내린 이 땅 끝까지 그 신념 포대로 세우고 한평생 장군님 걸으신 인민복무의 행군길에 오늘도 팔없이 울리는 어머니 우리 당의 발걸음소리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 신념 포대로 세우고 한평생 장군님 걸으신 인민복무의 행군길에 오늘도 팔없이 울리는 어머니 우리 당의 발걸음소리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 신념 포대로 세우고 한평생 장군님 걸으신 인민복무의 행군길에 오늘도 팔없이 울리는 어머니 우리 당의 발걸음소리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



영원히 당을 따라 한길을 갈 불라는 결의

위대한 평등과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금성정치대학의 학생들은 영원히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

갈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6월을 기기로 정치사상교육에 더 큰 힘을 넣음으로써 학생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

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혁명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학의 학생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자신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립학락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로씨야의 정당들이 꽃바구니 진정, 재로씨야동포 정일심 경모의 정 표시

위대한 평등과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정도로 조선로동당을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대적인 거룩한 자욱을 돌이켜 보고있다.

2014년 국내장애자의 날 련환모임 진행

2014년 국내장애자의 날 련환모임이 18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회명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장애자들, 가족들, 평양 학생소년궁전 교원, 학생들과 주조 유림동맹조대표부, 유림나라 대사관, 협조대표부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장애자예술소조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기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시길 것이다》,《위대한 평등과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위대한 평등과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불멸의 꽃 김정일 화에

2014청도세계원에박람회 국제분재경쟁 특별전시상 수여

불멸의 꽃 김정일 화에 2014청도세계원에박람회 국제분재경쟁 특별전시상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이 16일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는 2014청도세계원에박람회 집행위원회와 박람회 국제화초경쟁조직위원회 인사들, 국제경쟁평가심사원들, 중국화초협회, 청도시화초협회 인사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중국의 40여개 단위 대표들 등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사이의 교관제설정 40주에 즈음하여 깃따막 깨우친듯 주조 라오스특별전 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국제전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라오스대사관 성원들 국제전선전람관 참관

손님들은 백두산철취위인들의 위대성에 매혹되어 세계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올린 선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인디아에 갔던 조선년로자 보호련맹대표단 귀국

인디아에서 진행된 제12차 국제화련맹세계대회에 참가하

제 17차 정일봉상 전국대권도선수권대회 폐막

지난 9일에 개막되었던 제17차 정일봉상 전국대권도선수권대회 폐막되었다.

이런 선수권대회에서 평양시 태권도선수단이 종합 1등을,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과 강원도 태권도선수단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폐막식이 18일 태권도전당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태권도선수들과 감독들, 청소년 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경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우승금, 상장,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

요천재를 매고

청진화학공업공장 기료품직장 선동원 송선화동무는 직장이 지팡이는 초점전원인이다.

그는 백두산철취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고있으며 일리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선동사업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정하고있다.

조선화동무는 힘 있는 선동은 직장동무들을 인격발표수공정건설에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로동동원 최 석 은

원장이 폐막식을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선수권대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태권도발전 을 위해 바치신 백두산철취위인 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려는 태권도선수들의 드 높은 열의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 과 영예를 빛내이실라는 각오를 안고 우리 빛의 기술과 경기전법 을 더욱 완성하고 감독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우수의 성취를 경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우승금, 상장,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

천만심장은 한목소리로 위대한 어머니를 노래한다

가 요 《 내 심 장 의 목 소 리 》 를 들 으 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굳센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전체 조선민민의 심장이 하나로 뭉쳐 생을 주고 빛내여주시기 위한 어머니를 노래한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에서 장내를 뜨겁게 격동시키며 울려 퍼진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는 그 제목처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사형하며 부르는 노래로 되었다. 어디서나, 남녀로소 그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신 50년을 맞고있는 뜻깊은 6월 19일에 조선의 모습을 한복의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를 격정속에 부르며 어머니를 노래하는 수천만 아들딸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해주기도 더 위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날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당중앙위원회부리에 철검만검의 성세를 쌓아야 합니다.》

이 노래를 두고 우리는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어머니의 심장은 어떻게 뛰는

가. 어느때 봄빛처럼 따스해지고 기쁨에 떨리기도 하며 근심에 두근거리는가. 어느때 용암처럼 끓어번지기도 하며 때로는 얼음처럼 차가워 지기도 하는가. 그것은 분명 자기 자신보다 더욱 귀중하게 간주하고 있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다면 수천만의 심장으로 확인되고 노래하게 되는 우리 어머니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 어머니는 참을수 없이 살을 에이는 아픔속에서도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한 점의 추위라도 인민의 보금자리에 스며들세라 심장의 열기로 뜨겁게 품어주시는 고마운 은인이시다. 인민중재주의를 우리 당의 드립 않는 신조로, 투쟁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 꽃피우신 인민의 기쁨에서 가슴몰락하는 행복과 웃음, 더 대는 보람을 찾으시는분이 우리 어머니이다.

우리 어머니는 인민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모르신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해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니의 징벌을 면할수 없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짓밟으려는 원수가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자비를 말할수 없다.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인민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었던 가슴속사연도 많았고 눈물과 상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적인간의 긍지와 씩씩함을 누리며 세계에 당당히 나설수 있게 된것은 인간의 참된 정의와 진리를 걸음걸음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생활속에 피출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어머니이기때문에 그 누구나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꾸밈도 없이 가슴속에서 진실로 나타내어지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민의 리익을 더 높이기 위하여 애를 다써주시는 고마운 은인이시다. 인민중재주의를 우리 당의 드립 않는 신조로, 투쟁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 꽃피우신 인민의 기쁨에서 가슴몰락하는 행복과 웃음, 더 대는 보람을 찾으시는분이 우리 어머니이다.

우리 어머니는 인민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모르신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해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니의 징벌을 면할수 없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짓밟으려는 원수가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자비를 말할수 없다.

반영하고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그 방식에서 우리 인민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었던 가슴속사연도 많았고 눈물과 상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적인간의 긍지와 씩씩함을 누리며 세계에 당당히 나설수 있게 된것은 인간의 참된 정의와 진리를 걸음걸음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생활속에 피출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어머니이기때문에 그 누구나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꾸밈도 없이 가슴속에서 진실로 나타내어지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민의 리익을 더 높이기 위하여 애를 다써주시는 고마운 은인이시다. 인민중재주의를 우리 당의 드립 않는 신조로, 투쟁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 꽃피우신 인민의 기쁨에서 가슴몰락하는 행복과 웃음, 더 대는 보람을 찾으시는분이 우리 어머니이다.

우리 어머니는 인민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모르신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해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니의 징벌을 면할수 없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짓밟으려는 원수가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자비를 말할수 없다.

현실에 열렬히 매혹되고 공감하지 않았다면 이런 명가사, 명선물형상이 나올수 없다. 노래의 서정적주요 인물들인 천만군민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체험을 바로 명작창작의 또 하나의 비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애들은 가슴도 머릿집 늘은이로부러 붉은벚꽃이름을 달리는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사람들로 그토록 매혹시키는 감동적이고 절절한 노래형상을 창조할수 있는 것이다.

세상이 넓다 해도 조선로동당과 같은 어머니당,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와 같은 노래는 더는 없다. 조선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인간에게 수억만 인류 역시 안기고싶고 진정을 리치고있는 품을 그토록 소원했건만 이런 어머니를 찾을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나 그 어떤 《신》과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 시각도 그앞에서 무언인가 빌고있을 것이다. 몇해 전 어느 나라의 출판보도물에는 《조선은 어떻게 되어 그렇듯 단결력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거기에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쓴 이런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사회주의와 김정일명도자를 신봉하고있

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해에 태어난 가요 《어머니당여》로부러 《내 심장의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예술이 아로새겨온 어머니당 칭송의 50년력을 돌이켜보노라 우리 마음과 시선은 뜨겁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시고 시종일관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오신 어머니당건설의 원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혁명의 수위 에 높이 모신 오늘 영원히 변함을 모르는 절대적기준으로 되고 조선로동당이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우러러따르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며 백승의 억연담보이다.

어머니당앞에 더욱 순결하고 멋있게, 더욱 자랑스럽고 충직한 아들딸로 여세계 성장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며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와 더불어 심장의 목소리를 리치고있다. 조선로동당여, 우리 어머니시여!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을 사랑의 품에 안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라!

리 건

리 건

혁명군가에 발맞춰 세기를 놀래우는 조선속도를 창조해가리

공훈국가합창단순회공연 신의주에서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년을 맞으며 지난 16일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시작된 공훈국가합창단순회공연이 17일부터 신의주에서 평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 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오는 평안북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시련과 난관이 막아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오직 우리 당을 따라 신념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길,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걸고있는 평안북도인민들은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통하여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여세계 비어가고 있다.

방사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공훈국가합창단의 합창을 들으면 누구나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가슴후련해진다. 신의주방직공장의 당원군인 김성혁은 공훈국가합창단의 합

창 《조선의 힘》은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 밑에 억척으로 다져진 내 나라의 국력을 온몸으로 걸감하게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가기 위한 오늘날의 투쟁에서 대중의 정진력을 폭발시켜주는 노래목양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서해의 기적을 창조한 대계도 간격지 건설자들의 위훈을 전하며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새겨진 구호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의 진리성을 눈부신 현실로 빛내여가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심을 평안북도인민들과 로동계급은 공연을 통하여 다시금 걸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국강산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대기념비적합창물을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은 최후승리를 확실하고 강성국가에 메일을 보았다. 하기에 평안북도의 인민들은 공훈국가합창단의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에 심장으로 화답하고있다.

정평 평안북도의 그 어머니를 가보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생활이 오늘은 산골민들의 평범한 생활로 되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솟아난 강성원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누려가는 인민에게 《우리 앞날 밝다》와 같은 노래를 심장으로 합창하는 것이다.

강성원에서 일하는 리옥경은 우리 고장은 비록 산골이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해빛처럼 비쳐들어 우리 고장사람들의 꿈과 리상은 앞산의 저 눈은 봉우리보다 더 높았다고 행복에 넘쳐 말하였다.

생활에 대한 회열과 앞날에 대한 높은 리상을 안고사는 인민은 력사의 기적을 즐기치게 창조해나가는 법이다.

우리에게는 세기를 이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시켜주는 위대한 대상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신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무대에 오른 남성합창 《사회주의 지기세》.

이 노래가 나온 때로부터 어 느덧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명곡의 생활력과 감화력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기세

명곡의 구절속에 시대와 혁명의 부름이 세차게 메아리치고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원수들은 지금도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 주는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시대의 승결을 가슴에 안은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각계총원 인민들은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을 통하여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며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달고있다.

지금 평안북도의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나팔수인 공훈국가합창단을 보내준 당의 깊은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곳 인민들의 양양된 열의로 하여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차 수 사인 본사기자 김 진 명 (현지에서 전송)



혁신자부부의 남다른 금지

사 리 원 방 직 공 장 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보람과 행복은 혁명적정열을 가지고 살며 일하는데 있습니다.》

사리원방직공장에 가면 종업원들의 사랑을 받는 혁신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리정길, 김영심동무들도 있다.

4 직조직장의 수리공 리정길 동무와 직조공 김영심동무는 같은 직장, 같은 작업장에서 수십년간 일하는 부부혁신자이다.

말은 일을 잘하여 공장속보판에도 함께 이름이 오르고 혁신자추천후에도 나란히 나서군 하던 그 두 짝이 나날에 그들은 서로의 일출처에 반하여 일생을 함께 하게 되었다. 보람찬 로동속에 서로 돕고 이끔며 그들은 언제나 맡겨진 계획을 넘

처 수행하곤 하였다.

천생산수행이 힘있게 벌어져 선한일이 일어났다.

리정길동무가 작업장에서 기 대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간 지게 해나가고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툿 하는것이였다. 돌아보니 직장장이였다.

《집사람의 이름이 공장속보 판에 또 크게 났군. 4월말 현재 마음속으로 축하했군 하였다.》

그 경정은 언제나 서로를 위 해주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어 지곤 하였다.

이러한 속에 작업반의 생산실적은 날이 뛰어들었다 김영심 동무는 지난해에 3년분 생산계획을 수행하여 공장속보판에 크게 소개되었다. ...

그날 저녁 그들은 하루일을 마치고 나란히 퇴근길에 올랐다.

《여보, 축하하요. 속보판에 당시 이름이 또 났더군.》

《일심이 아버지, 제가 이렇게 혁신자로 축하를 받을 때 마다 총구소리를 들을 게 없군. 유 에가 힘들이합세라 가정일 도 도맡아나서군 하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별말을 다하구만,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소. 우리 언제나 혁신자로 삶을 빛내 이고 하지 않았소. 난 가정살림에 파묻히는 녀성보다 일터의 자랑으로 떠받들려주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돋보이는지 모르겠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은 그들의 열광마디에는 보람찬 로동속에 서로 돕고 이끔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담게 이바지 한다는 남다른 금지가 한껏 어 려되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이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활체로 결합되어 서로 돕고 이끔며서 화목하여 사는 집단주의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폭적의식으로 깨조 해나가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김동무들이란 인차 친속해지는 법이다.

얼마전 평양-원산관람도로를 달리는 배스안에서 일 이었다.

배스가 한창 달리고있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러져오른 요란한 박수소리가 우리의 호기심을 끌었다. 리정길의 열렬한 박수속에 얼굴이 빨갛게된 한 처녀가 어쩔 줄을 몰라하고있었다.

사연인즉 처녀가 열차에서 앉은 한 소년단원에게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고있었는데 건너편

좌석에 앉은 한 청년이 나도 그 노래를 사랑한다. 모두가 듣게 되고 불려달라고 하며 제 먼저 박수를 쳤던 것이다.

그러자 배스안의 손님들이 박수로 호응하였다. 여기저기서 《처녀동무, 어서!》 하는 목소리가 울려다. 처녀는 얼굴에 흥조를 함뿍 담고 자리에서 일

스레 자리를 차고 일어나 처녀와 나란히 섰다.

배스안엔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가 울려다.

친근하신 그의 정 가슴에 울러

자나거나 그 승결로 따뜻한 마음

...

홍색이던 장내가 조용해졌다. 노래는 어느덧 합창으로 변저졌다.

얼마후 배스안에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비탄 그들뿐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름과 주제를 우리는 다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들 앞에서 무엇이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대자애개조수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인민이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 마음을 얹고 한모습, 한뜻으로 달리고있는데야. ...

본사기자 리 경 일

당원들은 이가장고있다. 흥분하게 흥분하게 웃음을 광명성을

발전소 건설장의 자랑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는 혁명적열정이 끓어번지기 마련이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의 자랑족의 하나는 돌격대시인이 많았었다.

그들중에는 평양시에서 돌격대원 전순영동무도 있다. 지난해부터 돌격대원으로 일하고있는 그는 10살짜리 자식을 가진 청년이었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생활도 하면서 그는 청천강안에

리는 돌격대원들을 고무하고 있다.

돌격대원들은 전순영동무를 돌격대시인이라고 부르며 누구나 존경하며 따랐다.

어찌 그뿐이랴. 오늘 발전소 건설장에서는 수많은 돌격대시인, 돌격대작가들이 자기들의 위훈으로 수놓아진 투쟁과 랑만에 넘친 생활을 작품에 담고 있다.

전력공업성리단 김본학동무와 황해남도리단 배천근대대 건설장동무, 연안군대대 전경철동무를 비롯하여 많은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투쟁과 랑만으로

가득찬 돌격대의 생활을 문학작품들에 담아 소리높이 구가하고 있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벽한 건설장에 달려나와 충성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청년들, 한가정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남다른 돌격대원들, 그들의 드높은 열의에 따라서 지원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의 완공을 위해 너도나도 떨쳐나선 그들의 벽한 투쟁모습을 문학작품들에 담아 전하고있을 것이

이곳 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장이다.

이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가 완공되면 돌격대원들은 그 작품을 보며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추억하리라.

—나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가? 매일, 매 순간이 이 물음앞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돌격대원들은 완공의 그날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당의 뜻을 받들고 노동과 같이 나아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의 회열과 랑만넘친 생활이 있어 그렇듯 많은 돌격대시인, 돌격대작가가 자라나는것이 아니라.

본사기자 오 은 별



본사기자 차 수 사인 본사기자 김 진 명 (현지에서 전송)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항도적력량,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불멸의 업적

《조선의 붉은 당기 세계의 중심에서 영원히 휘날리리라》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 사태가 일어나고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국제반동들이 사회주의의(중략)를 떠돌 때에도 우리 공화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전진해왔다. 이러한 경이적인 현실 앞에서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조선로동당을 존경하고 견투적기백으로 열렬히 찬양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인제인가 로씨야(러시아)를 라지보스토프시위원회 제 1비서의 자격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올라지미르 보리소비치 피클라에브는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회세의 위인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강하고 조선의 군민은 신념의 강자로 되었으며 조선사회주의가 성세처럼 수호되고 역세로 전진하고있다.

이것은 그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고 심장으로 해낸 말이다. 피클라에브로 말하면 군인시절부터 로씨야(러시아)에 당이러는 배를 띄워 인민들을 살고 사회주의의정신을 꽃피게 할 달라고고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한 리상을 안고 그는 제후후 당학교를 지망하였고 원동지역에서 당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리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의

신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으로 수십년간 휘날리던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역사의 역풍이 휘몰아쳤다.

새로 창건된 로씨야(러시아)공산당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그후 당 제2차 비상대회에서 재건을 선포하였으나 당활동의 전도는 그럭저럭이지 못하였다. 그때 갖조직된 올라지보스토프시 당사업을 맡고있던 피클라에브도 당활동, 특히 당사업의 정확한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소련당학교의 당건설리론교과서에도 당의 사상사업문제는 차오시되어있었고 당의 신념문제와 같은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선형리론으로써는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책임을 줄 수 없었다. 정신적변화와 마음의 동요속에 모대기던 그에게 검은구름을 헤가르며 찬란한 아침해발이 비쳐들었다.

당건설과 당사업에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받아안았었다.

사회주의정권당의 붕괴의 원인과 그 역사적요인이 해명되고 동로동계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과 그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그리고 당사업요양사업의 원칙적요구와 기본업무, 사회주의신념요양의 내용과 방

법이 독창적으로 천명된 로작들은 그야말로 당활동의 총서였으며 당사업의 지침서였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갈 길이다. 피클라에브는 환상을 몰았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의 원칙을 꿰차고 고수하시려는 김정일동지의 강철의 신념, 의지를 보았다. 사회주의의 앞날에 대해 머리를 기울여 리던 사람들에게 주는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대답을 들었다.

“가자. 세계적인 판도에서 정치폭풍이 휘몰아친 90년대에 어용출판도물들이 입이 아프게 떠들어대고 하는 비판과 우물같은것은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었다. 노예와 종, 웃음, 이것이 평양의 모습, 조선의 모습이였다. 그의 마음을 더욱 강동에 젖게 한것은 조선로동당의 의식 신념의 이상인양 펼쳐 나뉘는 붉은 당기였다. 그것을 바라볼수록 그는 격동되는 심정을 다잡을수 없었다. 피클라에브는 우리 나라의 뜻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화국이 어떻게 되어 미제와 국제반동들

의 악랄한 봉쇄와 압살공세가 계속되고 여러가지 난관까지 겹친 최대의 역경속에서 붕괴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패의 사회주의의 불로로 더 높이 솟아올랐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세기 90년대에 로씨야(러시아)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승리에 대하여 감탄하며 대서특필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흐르며 선히 떠올랐다.

1993년초 어느날 로씨야(러시아) 령방공산당 중앙위원회판지 《브라우다 로씨야》를 펼쳐본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반도에서 끝내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 소식들이 실렸던것이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주시했다.

조선은, 조선로동당은 어떻게 대응해나갈것인가. 드디어 조선로동당의 정치결정단이 내려졌다. 1993년 3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의 명령으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던것이다. 전민이 결사항전의 맹세로 가슴들을 불태웠다.

조선로동당의 의식 신념앞에서 세계군사기사와 정치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조선과 미국과의 대결은 조선로동당의 붉은기에서 미국인들을 들고나오는것으로 막을 내리고말았다.

세계가 이것을 놓고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

조선의 어제와 오늘은 피클라

에브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존엄한 역사적시기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당의 불패성을 떨치며 세계공산주의운동에 사상정신적명령을 준 당이 조선로동당이다.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천재적인 사회주의사상리론가로 세계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김정일동지가 아니시고자야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려세우려고 제국주의반동들이 미처나타지 못한 시기에 그 누가 확신있게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예언할수 있었는가.

조선로동당의 필승의 위력은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필연이다. 조선로동당이라는 거목은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무비의 단력을 지닌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있었기에 세계적인 정치과동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거연히 솟아있는것이다.

그는 세상사람들에게 이렇게 웨치였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이 있었고 이 령도하에 조선로동당이 백전백승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무상의 영광을 드린다.

“김정일동지의 상징인 조선의 붉은 당기세계의 중심에서 영원히 휘날리리라.”

본사기자 리학남

혁명적당건설과 자주위업

△결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대화가 온 행성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담화에서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다.》

그이의 당건설리론과 당령도업적은 모든 진보정당들이 투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다운 교과서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인사들은 물론 평범한 근로인민들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매혹되어 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서 반제자주위업수행의 승리의 길을 개척하신 력사에 전후 후환을 전할수없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인민대중의 선군령도자로서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킴으로써 자주위업수행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들어주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 백승의 지침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혁명의 항도적력량인 당을 와해멸망시키는데 노력을 들이고있는 조건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판건적문제라 보신다. 사회주의위업, 자주위

업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혁명적당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그 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이끌어나가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령도자만이 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끝까지 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예지와 자질, 당과 혁명에 대한 령도경험과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한 정치천로이시다.

력사적인 평양인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혁명적당들이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당을 건설하고 국제적단결과 판대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위업의 위대함과 힘차게 나아가갈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정공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시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인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들면서 수평이 위대한 당도 대대로 결출한 수평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자로 빛나게 아로새기고 뜻깊게 기념하고있는것이다.

태양의 광휘로움과 따사로운 빛은 해와 달이 없어도 빛나는 빛만따라니의 팔과 글로도 다 전할수 없고 그 위대함과 거룩함을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적사이고 6월 19일에 갖든 의미이다.

어느덧 선전본대의 뜻깊은 아침이 밝아왔다.

세월의 흐름속에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과 함께 인류는 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찬란한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나 세한 걱정을 담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했다. 누구든 알고싶은것이 있다면 우리 당중앙청사에 펼쳐 휘날리는 붉은 당기를 응시하며 웃어라.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행사가 붉은 기록에 이르고 인민대중의 울림과 미레를 모두 간직하고 창공높이 펼쳐있는 저 기발, 우리의 당기는 바로 주제 53(1964)년 6월 19일과 함께 더욱 불어지고 더욱 세차게 나뉘는것이지리라.

본사기자 리철혁

출기차게 이어지는 백승의 력사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경축행사를 소개합니다.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민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항도적력량으로 다지시켰다. 또한 주제사업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제사업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승리를 이룩하여 온 세계의 인민들을 고무하고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오스트리아단체 불려진 발행

안시고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력사의 이날로부터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정일성주의의 사상으로 승수고 움직이는 주제형의 혁명적당으로, 주석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조선중앙통신】

독립정당으로서의 위대한 조선의 선군정치는 세상이 가장 우월한 정치방식이다. 조선에서는 권대가 나라의 안전도 지키고 경제건설의 돌파구도 열어나가고있다. 선군정치가 있기에 조선은 필승불패이다고 격찬하였다.

어떠오피아 카디코종합병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면서 조선인민의 존엄을 누리며 전진시키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것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금치 못하면서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메히코로동당대묘단 당장 알베르도 아나야 구에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절

시대와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서의 위업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시대와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더욱 표면화되는 로씨야와 나토의 대결

최근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군사적긴장감이 고조되고있다. 지난 6일부터 나토는 2014년 발트해군사적의 일환으로 발트해에서 《발트푸스-2014》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있다. 21일까지 계속되는 이 훈련에는 미제 6함대사령부의 지휘하에 영국, 도이쎄란드, 라트비아, 리트바, 에스토니아 등 13개 나라의 방대한 병력이 참가한다. 또한 지난 9일부터 발트해지역 3개국들인 라트비아, 리트바, 에스토니아의 평지에서 나토의 합동군사연습 《에이버 스트라이크-2014》가 시작되었다. 미국주도하에 벌어지는 이 합동군사연습에는 10개 나라에서 4 000여명의 병력과 800여대의 탱크가 참가한다. 나토군사령부는 처음으로 이번 군사훈련이 로씨야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알려진것처럼 미국과 나토는 로씨야를 반대하여 이미전부터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보여왔다.

최근년간 로씨야국경지역 가까이로 유럽미사일방위체계

미국인들이 높이 칭송

로씨야(러시아)사회주의대묘단 당장 바셀레 오를레이누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위업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을 판건적문제라 보신다. 사회주의위업, 자주위

혁명적당건설과 자주위업

△결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대화가 온 행성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담화에서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다.》

그이의 당건설리론과 당령도업적은 모든 진보정당들이 투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다운 교과서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인사들은 물론 평범한 근로인민들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매혹되어 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서 반제자주위업수행의 승리의 길을 개척하신 력사에 전후 후환을 전할수없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인민대중의 선군령도자로서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킴으로써 자주위업수행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들어주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 백승의 지침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혁명의 항도적력량인 당을 와해멸망시키는데 노력을 들이고있는 조건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판건적문제라 보신다. 사회주의위업, 자주위

혁명적당건설과 자주위업

업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혁명적당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그 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이끌어나가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령도자만이 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끝까지 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예지와 자질, 당과 혁명에 대한 령도경험과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한 정치천로이시다.

력사적인 평양인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혁명적당들이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당을 건설하고 국제적단결과 판대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위업의 위대함과 힘차게 나아가갈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정공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시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인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들면서 수평이 위대한 당도 대대로 결출한 수평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도이쎄란드반제연단인 조선 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호소문을 지지하여 8 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정일성주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호소문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도이쎄란드반제연단은 김정일성주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널리 소개선전하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호소문을 적극 지지

기 위한 전세계 조선의 벗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시한다.

우리는 김정일성주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국제적인 인터넷토론회에 적극 참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일성주의의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고있다.

* * *
위대한 수령 김정일성주의의 서거 20돐에 즈음한 조선평화

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호소문을 지지하여 방글라데시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비 내외부자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의 건설의 시조이신 김정일성주께서는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신 자들의 위대한 위업에 감탄하는 경모를 받으시며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방글라데시인민련맹은

혁명적당건설과 자주위업

△결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대화가 온 행성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담화에서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다.》

그이의 당건설리론과 당령도업적은 모든 진보정당들이 투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다운 교과서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인사들은 물론 평범한 근로인민들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매혹되어 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서 반제자주위업수행의 승리의 길을 개척하신 력사에 전후 후환을 전할수없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인민대중의 선군령도자로서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킴으로써 자주위업수행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들어주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 백승의 지침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혁명의 항도적력량인 당을 와해멸망시키는데 노력을 들이고있는 조건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판건적문제라 보신다. 사회주의위업, 자주위

혁명적당건설과 자주위업

업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혁명적당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그 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이끌어나가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령도자만이 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끝까지 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예지와 자질, 당과 혁명에 대한 령도경험과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한 정치천로이시다.

력사적인 평양인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혁명적당들이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당을 건설하고 국제적단결과 판대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위업의 위대함과 힘차게 나아가갈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정공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시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인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들면서 수평이 위대한 당도 대대로 결출한 수평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혁명적당건설과 자주위업

업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혁명적당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그 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이끌어나가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령도자만이 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끝까지 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예지와 자질, 당과 혁명에 대한 령도경험과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한 정치천로이시다.

력사적인 평양인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혁명적당들이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당을 건설하고 국제적단결과 판대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위업의 위대함과 힘차게 나아가갈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정공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시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인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들면서 수평이 위대한 당도 대대로 결출한 수평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혁명적당건설과 자주위업

업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혁명적당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그 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이끌어나가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령도자만이 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끝까지 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예지와 자질, 당과 혁명에 대한 령도경험과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한 정치천로이시다.

력사적인 평양인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혁명적당들이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당을 건설하고 국제적단결과 판대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위업의 위대함과 힘차게 나아가갈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정공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시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인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들면서 수평이 위대한 당도 대대로 결출한 수평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혁명적당건설과 자주위업

업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혁명적당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그 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이끌어나가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령도자만이 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끝까지 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예지와 자질, 당과 혁명에 대한 령도경험과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한 정치천로이시다.

력사적인 평양인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혁명적당들이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당을 건설하고 국제적단결과 판대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위업의 위대함과 힘차게 나아가갈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정공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시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인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들면서 수평이 위대한 당도 대대로 결출한 수평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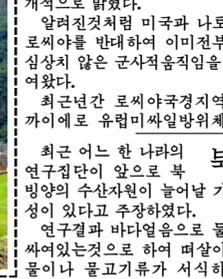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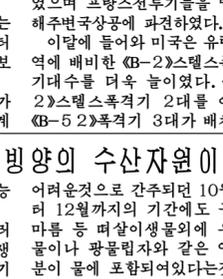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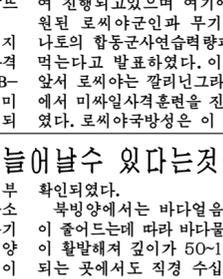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